



##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건: 한 ‘우발적인’ 미디어법학자의 회고 ②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조나단 마셜 수정헌법 제조 석좌교수

### 한국과 세계 사이 다리 놓기

한국 언론법 연구는 한국과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 다리를 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연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적었기 때문에 나의 연구를 공유하는 것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한국 언론법 분야의 유일한 연구자로서 겪었던 성장통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교수직을 막 시작했던 젊은 시절, 커뮤니케이션 분야 세계 3대 학회 중 하나인 미국 저널리즘 및 매스컴 교육학회(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EJMC)에 제출했던 나의 한국 언론법 논문이 게재거부 당하는 일이 있었다. AEJMC의 ‘법과 정책’ 연구분과장은 “한국 언론법에 관심을 갖는 AEJMC 회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오만한 연구분과장의 권한남용이었다. 다른 논문 심사위원

\*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영문 칼럼의 번역본으로서 불호에 이어 2부를 게재함. 1부의 내용 가운데 “학문적 정점”은 “학문적 회열”로, “한번 부딪쳐볼 기회조차 있을까?”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로 번역을 수정함. 또 “면책적 구성 원칙”은 “무해적 해석 원칙”,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세션은 스탠딩으로 진행되었다”는 “이 세션은 만석이어서 입석 밖에 남지 않았다”로 각각 수정함. 염규호 (2024),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건 ①, <언론중재>, 2024 불호(통권170호), pp.90-99 참조.

3명이 나의 논문을 높이 평가하고 채택을 추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언론법에 관한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해졌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 언론법의 세계적 의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언론법은 다양한 책과 학술저널, 전문가 논평의 주제로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 학술서 〈Media, Advertising & Entertainment Law Throughout the World〉의 편집자인 미국 변호사 앤드류 울머(Andrew Ulmer)는 자신의 책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내게 보내왔다. 그는 한국이 미디어와 관련 법의 '주요국가'이며, 자신의 글로벌 언론법 책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2016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국 언론법 연구자들과 함께 미국, 영국, 한국의 커뮤니케이션법 학자들을 초청해 각각 '언론법 포럼'과 '표현의 자유 포럼'을 개최하여 언론법 분야의 가교 역할을 했다. 한국 언론법의 세계화를 위한 나의 노력은 결코 한국의 언론과 언론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19년 3월에 열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관한 'I-CONnect 심포지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이 심포지엄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I-CONnect 공동편집자인 리처드 알버트(Richard Albert) 교수(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 문의했는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와 I-CONnect의 중개자인 톰 긴즈버그(Tom Ginsberg) 교수(시카고 대학교 로스쿨)는 "귀하가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충분한 퀄리티가 보장된다면-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 심포지엄을) 기꺼이 진행할 것입니다"라면서 적극 동의의사를 밝혀왔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긴즈버그 교수, 원유민 당시 스탠퍼드대학 법학박사 후보생(현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저명한 법 전문가 3명이 처음으로 열려 호평을 받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알버트 교수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심포지엄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큰 선물'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가 2018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원 교수의 탁월한 논문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보는데, 논문은 인권에 관한 현재 판결을 다룬 것으로 저명한 법학 저널에 게재되었다.

## 학자가 되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법조인, 학자,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의 한국 언론법 연구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었을 것이다. 고(故) 팽원순 교수(한양대)와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두 분이 떠오른다. 1983년 5월, 연구를 위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예고도 없이 불쑥 팽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개를 했다. 하지만 팽 교수는 나를 집으로 초대해 '한국 언

론법 개론'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의를 무료(pro bono)로 해주었다! 또한 나는 1994년 서울에서 박용상 당시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방문한 이후 그의 국내외 언론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저술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내게 가장 기꺼이 한국 언론법 자료를 제공해 준 사람 중 한 명이다.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박 변호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었다.

사람들의 친절한 도움은 미국 및 국제 언론법 연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칼럼니스트 고(故) 앤서니 루이스(Anthony Lewis)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1991년 발표된 그의 칼럼은 내가 영향력 있는 법학 학술지에 외국 법원에서 미국의 언론에 대한 논문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가 칼럼에서 설명했던 '박찬 대 인디아 어브로드 퍼블리케이션즈'(Bachchan v. India Abroad Publications) 사건에 관여했던 런던의 변호사들과 나를 연결해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영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마크 스티븐스(Mark Stephens)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언론법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년 전, 그는 영국의 중요한 언론법 사건에 대한 미공개 자료들을 빌려주었다. 2019년 '중립 보도에 관한 나의 연구 논문에서 영국의 중립 보도와 미국의 명예훼손 사건인 '에드워즈 대 국립오두본협회'(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2d Cir. 1977))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스티븐스의 유익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법학자로서의 삶에는 행운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2002~2003년에는 국제법상 취재원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사건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중군기자였던 조나단 랜달(Jonathan Randal)에게 보낸 소환장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오곤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ICTY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권오곤 판사가 ICTY 판사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모든 관련 ICTY 문서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언론법을 연구하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언론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위크(Newsweek)가 이화여대 학생 3명에게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했을 때, CJ인터내셔널(구 동서법무법인)의 김찬진 창립대표변호사가 '권순정 대 뉴스위크 사건'(1995)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공동 연구, 많은 손이 모여야 일이 쉬워진다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던 초창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연구와 글쓰기를 혼자서 해왔다. 스톤사이퍼 교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나와 함께 학술지 논문의 공동저자였다. 하지만 최

근 들어 나의 작업은 학계는 물론 학계 바깥의 저자들과의 협업으로 확대되었다. 내가 애리조나 주립대(ASU)에서 가르치는 동안 조셉 루소마노(Joseph Russomanno) 교수는 나와 함께 '중립적 보도'와 '금반언의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학회 발표문과 법학 학술지 논문을 여러 편 썼다. 2009년부터 박아란 교수(고려대)는 나와 함께 공동저자로서 한국의 정보공개법, '잊혀질 권리', 사법적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Media, Advertising & Entertainment Law Throughout the World>의 '한국' 챕터를 업데이트하고 개정하는 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ae, Kim & Lee),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KELS)의 여러 한국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었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들었던 점에서 그들의 이 공동작업은 봉사 활동과 다름 없었다.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미국의 언론전문 변호사 브루스 존슨(Bruce E.H. Johnson)과 글로벌 정보자유(Freedom of Information, FOI) 분야 전문가인 토비 멘델(Toby Mendel)과 같은 학계가 아닌 공동 저자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나와 공동으로 비교광고법 저널에 논문 한 편과 세계 정보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관한 책의 한 챕터를 각각 발표했다.

## 전통적 학술 출판의 틀에서 벗어나기

대학 교수 시절 초창기부터 가장 우선시했던 일 중 하나는 학술지 논문을 출간하고 학회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연구 중심의 저널리즘 및 법률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는 모험을 시작했다. 오리건 대학교 편견 대응팀에 대해 일간지 <The Oregonian>에 기고한 것처럼 나는 주로 표현의 자유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해서 신문 칼럼을 많이 썼다.

하지만 서평을 쓰는 것은 학자로서의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 시간 낭비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Communications Lawyer> 같은 업계 잡지나 전문직 뉴스레터는 충분히 '학술적이지 않으니 고려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미국 명예훼손법의 '바이블'로 불리는 '명예훼손, 비방 및 관련 문제'(나중에 '색 판사의 명예훼손 해설: 명예훼손, 비방 및 관련 문제로 변경)를 포함해 100권이 넘는 책에 대한 리뷰 칼럼을 썼다. 여기에 더해 <Communications Lawyer>, <Grassroots>, <Media Law Notes> 등에 에세이, 논평, 서평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틈틈이 소셜미디어, 특히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언론법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올린 거의 모든 트윗은 미국과 해외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에 관한 책, 학술논문, 뉴스기사, 블로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리뷰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까지 11,500개 이상의 트윗을 올렸다. 언론법에 초점을 맞춘 트윗은 2011년 <Forbes.com>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sup>2)</sup>

## 글을 맺으며

나의 오랜 멘토인 프니나 라하브(Pnina Lahav) 교수(보스턴 대학교 로스쿨)는 31년 전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이 선택한 나라와 모국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교수님의 이메일은 겸허하게 느껴졌는데, 특히 선구자적인 학문과 관대한 멘토링으로 인해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이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언론법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살아온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면 나는 가장 운이 좋은 학자이자 선생인 것 같다.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과 해외에서 수많은 동료학자, 멘토, 지지자들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었다. 더구나 그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가령, 1981년 언론법 과목 시험을 망친 수강생이었던 내게 스톤사이퍼(Stonecipher) 교수가 보여준 따끔하고 애정어린 조언은 대학원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였다.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내게 한국 언론법을 역발상으로 제안한 그의 조언은, 진화하는 한국 언론법을 통해 미국 언론법을 통찰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흥미로운 기회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언론법을 들여다보는 ‘전환적 시각’이었다!

언론법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경험적 지혜를 드릴 수 있을까? 솔직히 언론법 연구에 마법의 공식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전 예일대(Yale) 로스쿨 학장이자 현재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인 귀도 칼라브레시(Guido Calabresi)가 설득력 있게 설파한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와 같은 기본적인 직관적인 조언이 가장 적절한 답변일 것이다. 다만 나로서는 이런 조언은 할 수 있겠다. “당연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더 나아지기 위해 도전하세요. 그리고 모든 기회를 포용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결코 당연시하지 말며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언론법 학자와 선생이 된 것은 결코 계획된 일이 아니었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모든 면에서 정말 행복한 우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흥미진진한 여정이었다. 🌍

2) Ben Kerschberg (2011. 9. 14). “Eight Great Law & Technology Resources”. <Forbes.com>. URL: <https://www.forbes.com/sites/benkerschberg/2011/09/14/eight-great-law-technology-resources/?sh=2be9fd396737>

##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 . . FORTUITOUSLY ②: AN “ACCIDENTAL” MEDIA LAW SCHOLAR’S RETROSPECTIVE

**Kyu Ho Youm**

Jonathan Marshall First Amendment Chair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University of Oregon

### Bridging the Gap

I have always considered my research of Korean media law as a way to build a bridge between Korea and the world. But bridge-building was not an easy task in the 1980s. Back then, it was a never-ending challenge for me to share my research due to perceptions about its relevance.

Here’s my growing-pains story as the minority of one in Korean media law in America of the 1980s: As a young professor, I had my Korean law paper curtly rejected for an AEJMC conference. The AEJMC Law and Policy Division research chair included in her perfunctory letter a terse longhand note: “Few AEJMC members would be interested in Korean law.” (In retrospect, this was the ultimate case of a hubristic research chair’s abuse of authority. Truly so, given that my research paper was highly rated by three other paper reviewers and recommended for acceptance.)

In recent years, however, presenting conference papers and publishing journal articles about Korean law have been more doable globally. Since the 1990s, Korea has emerged as an economic powerhouse and, more importantly, as a thriving democracy. This has helped improve the global relevance of Korean law. In the past twenty years, Korean media law has been increasingly in demand as a topic for books, book chapters, journal articles, and professional commentaries.

Indeed, in the late 2000s, U.S. attorney Andrew Ulmer, editor in chief of *Media, Advertising & Entertainment Law Throughout the World*, invited me to contribute to his book project. He noted that Korea was “a major country” in media and related law and that his global media law treatise could not afford to forgo Korea.

In 2016, bridge-building in media law led me to work with some of my Korean media law friends with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Chung-Ang Law School in organizing a media law forum and a freedom of expression forum, respectively, by

inviting American, UK, and Korean communication law scholars.

By no means were my assiduous efforts to help globalize Korean law limited to free speech and press in Korea. A showcase was the I-CONnect symposium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in March of 2019. To my inquiry about a possible CCK symposium, I-CONnect coeditor Richard Albert (University of Texas-Austin) responded, “I think it’s an excellent idea.” Professor Tom Ginsburg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my go-between for I-CONnect, seconded enthusiastically: “It sounds like we’d be willing to post [the CCK symposium], if you’d take the lead on organizing it and assuming sufficient quality (I have little doubt about that part).” Three distinguished law experts—CCK Justice Ilwon Kang, Ginsburg, and then Stanford JSD candidate Yoo Min Won (now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participated in the well-received CCK symposium, the first of its kind. Albert commented, “We have not had a lot on Korea—so your symposium is [a] great gift to us!” The “great gift,” I should note, was in no small measure inspired by Won’s first-rate law journal article on CCK rulings on human rights, which I had read in 2018 with keen interest.

### It Takes a Village to Be a Scholar

My Korean media law research would have been a herculean task had numerous jurists, scholars, and journalists not helped me with alacrity. In this connection, two people stand out: the late Professor Won-soon Paeng (Hanyang University) and former Chairman Yongsang Park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Korea.

No sooner had I arrived in Seoul for research in May of 1983 than I called Paeng and introduced myself. It was a cold call to him. But Paeng invited me to his home and gave me a first-class tutorial on “Korean Media Law 101”—pro bono!

Since I visited with Park in 1994 in Seoul, I have marveled at Park’s profound knowledge and prolific writing on Korean and foreign media law. He’s been one of my most willing Korean media law resources for the past thirty years. Whenever I needed often-inaccessible source materials, Park took the trouble to find them for me.

When it came to others’ kindhearted help, my American and international law research was no different. Among others worth noting is the late Anthony Lewis of the *New York Times*. His syndicated column in 1991 inspired me to write a high-impact law journal article on American media in foreign courts. Most memorable, Lewis put me in touch with the London lawyers in *Bachchan v. India Abroad Publications*, on which he had expounded in his column.

Mark Stephens, a prominent human rights lawyer in England, was invaluable to me in expanding my research on media la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everal years ago,

he loaned me the unpublished voluminous briefs in some of the significant UK media law cases. For my 2019 research paper on “neutral reportage,” Stephens’s informative briefs were crucial in establishing the direct connection of the UK neutral reportage to the American libel case *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2d Cir. 1977).

My life as a media law scholar has had more than a few moments of serendipity. In 2002-2003, I was researching a landmark case on journalistic source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ase concerned the subpoena fro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to Jonathan Randal, a former *Washington Post* war correspondent. The ICTY Korean judge, O-Gon Kwon, went out of his way to ensure that the ICTY registrar and her staff would assist me in researching the ICTY case. Had Kwon not been on ICTY as a judge, I could not have accessed all the relevant ICTY documents.

My Korean media law research rarely touched on foreign media in Korea. But when *Newsweek* was sued by three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for defamation and an invasion of privacy, attorney Kim Chan-Jin, the managing partner of the CJ International Offices in Seoul, facilitated my access to all the materials on *Kwon Sun-jong v. Newsweek* (1995).

### Collaborative Research: Many Hands Make Light Work

Except on a few occasions during the early years of my career, my research and writing had been solo. Stonecipher was my coauthor of journal articles in 1985-1992. More recently, though, my collaboration has expanded to academic and nonacademic authors.

While I taught at ASU, Professor Joseph Russomanno wrote several conference papers and law journal articles with me on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neutral reportage” and promissory estoppel.

Since 2009, Professor Ahran Park at Korea University has examined with me as her coauthor in examining freedom of information (FOI) law, “right to be forgotten,” and judicial communication in Korea, among other topics.

Several Korean lawyers from Bae Kim & Lee, D’Light, and the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KELS) in Seoul have helped me since the late 2000s in updating and revising the “Korea” chapter for *Media, Advertising, and Entertainment Law Throughout the World*. Their coauthorial work was a labor of love, given that it’s a time-consuming and labor-intensive commitment, and I am deeply grateful.

Also noteworthy are my nonacademic coauthors: US media lawyer Bruce E.H. Johnson and the global FOI expert Toby Mendel. Johnson and Mendel have published in

collaboration with me a comparative advertising law journal article and a book chapter on the US impact on global freedom of information, respectively.

## Outside the Box of Traditional Academic Publication

One of my priorities since my early years of college teaching has been publishing journal articles and presenting conference papers. After a few years into my academic career, however, I ventured beyond publishing research-oriented journalism- and law-related articles.

I've published a number of newspaper columns, mostly on freedom of expression law issues, as I did for the *Oregonian* on the University of Oregon bias response team.

As often as not, however, I have been cautioned against publishing book reviews as a waste of time in term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lso, I was told not to consider trade journals like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Communications Lawyer* or professional newsletters because they are not "scholarly" enough. But I didn't heed that advice. I have reviewed more than one hundred books, including *Libel, Slander, and Related Problems* (later changed to *Sack on Defamation: Libel, Slander, and Related Problems*), the "bible" of American defamation law. For good measure, I have published essays, commentaries, and book reviews in *Communications Lawyer*, *Grassroots*, *Media Law Notes*, etc.

Since the late 2000s, my avocational contribution to media law research has been through social media, especially X (formerly known as Twitter) and Facebook. Almost all of my tweets have related to books, journal articles, news stories, blogs, book reviews online and offline, etc., on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To date, I have posted 11,500-plus tweets. My media law-focused tweeting was noted on Forbes.com in 2011 (Ben Kerschberg, "Eight Great Law & Technology Resources," Forbes.com, Sept. 14, 2011, <https://www.forbes.com/sites/benkerschberg/2011/09/14/eight-great-law-technology-resources/?sh=2be9fd396737>).

## Concluding Words

My longtime mentor Pnina Lahav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wrote to me thirty-one years ago: "It is very inspiring to have people like you in this country, diligently working on building bridges between their native and adopted countries." Lahav's email was humbling, especially considering that it was from someone whom I admire so much for her trailblazing scholarship and mentoring generosity.

In looking back on my overall good life in media law teaching and research, I feel I'm the luckiest scholar/teacher—not because I've accomplished something scholarly but

because I've been blessed with so many friends, mentors, and suppor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for the past forty-plus years. They have given without asking anything in return.

And they have given more than they ever could have anticipated. For example, Stonecipher's tough-love advice for me as a failing media law student in 1981 was a game changer in my survival as a grad student. And his counterintuitive Korean-law suggestion for me as a PhD student opened my eyes to a lot of exciting opportunities to discerningly appreciate American media law through evolving Korean law. What a "reverse perspective" on U.S. media law!

What's the experiential wisdom for me to share with those interested in media law for research? Frankly, there's no magic formula for media law research. Basic, intuitive advice serves best, such as "Imagine the Past, Remember the Future," which was eloquently preached by Guido Calabresi, former Yale Law School dean and currently a judge for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https://tinyurl.com/y7vmyev3>). Beyond that, don't settle for the obvious, and challenge yourself to do better by competing with yourself. Finally, relentlessly strive for excellence—embracing every opportunity and never taking for granted the people who have helped you along the way.

Becoming a media law teacher/scholar was certainly not planned, but a series of events led me to this point. It has been a scintillating journey, to say the least—on every level, a truly happy accident.